

경제위기에 무관심할 길은 없을까?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다시 신문을 열독하게 됐다. 정보홍수로 의사상태에 빠진 머리를 쉬게 해주자는 취지로 신문 및 포털뉴스를 멀리하자고 결심한지 꽤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여유부릴 겨를이 없다. 물론 경제 불안 때문이다. 1면에서 곧바로 마지막 면 칼럼란으로 건너뛰던 습관도 달라졌다. 경제면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엄습한 경제 위기

지난 주에는 KBS 심야토론과 MBC 100분 토론까지 챙겨보았다. 두 곳 다 같은 주제,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었다. 이른바 K 본부 토론은 위기가 과장됐으며 정부가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다는 안심론이 주조였고 M 본부에서는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질책과 불안한 미래전망이 더 큰 인상으로 다가왔다. 신문, TV 같은 공식매체만으로는 성에 차지를 않는다. 인터넷상의 각종 토론방에도 기웃거리려 본다. 어디를 가나 최대 관심사는 자칭 '고구마 장사' 라고 일컫는 아이디명 '미네르바'의 상황분석이 대화제였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이 나라의 서민, 중산층은 곧장 파멸로 치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하는 사람일까. 엄청나게 해박할 뿐더러 인용하는 자료가 가히 전문 연구소 보고자료 수준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건만 결론은 안타깝게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이다. 별 쓸데도 없는 국문학을 전공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대학원 시절 크게 네 가지 학설로 나뉘는 향가해독을 섭렵하느라 머리털이 빠지던 기억이 새록운데 그 때

경제원론이나 공부해 둘 걸 그랬나보다. 문득 다른 사람들 사정은 어떻게 궁금해진다. 통화스와프이니 뭐니 도대체 그 개념이해도 힘겨운 전문용어의 숲을 헤치고 다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처지가 나와 다른 사람도 수두룩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IMF 시절의 몇 배 가는 한국경제의 대붕괴 사태가 닥칠 거라는 으스스한 전망 앞에서 정말 무력해지는 기분이 든다. 죽장에 샷갓 쓰고 무위와 자연의 노장을 읊으며 소요음영할 만한 배포도 없으니 '답답워라, 이 내 신세', 탄식도 사설조로 흘러나온다.

좀 비겁하지만 글로벌 위기를 내 개인 신상으로 치환시켜 놓고 본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니 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터져도 해고의 걱정이 없다. 어디 투자는커녕 펀드 하나 가입한 일 없으니 증시등락에 고심할 일 없다. 몇 해 전 친구 권유로 단종 1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게 전부인데 다 날린다고 해도 집안이 망하지는 않는다. 원 달러 환율이 요동친다고 해봤자 개인적으로는 해외 유람 여행길이 막힐 뿐 그까짓 것 안 가면 그만이다. 집 있고 빚 없고 몇 푼 은행저축을 믿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나 같은 게으름뱅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혹시 내가 예탁한 은행이 도산한다면? 그 정도라면 나라가 붕괴되는 사태에 가까울텐데 개인이 염려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지. 유유상종인 모양이다. 가까운 친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테크에 무능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자랑으

로 알고 직장도 여간해서는 망할 성질이 아닌 대학들이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 왜 흥흥해하고 힘겨워할까. 조국에 내지 인류애가 넘쳐서일까.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원천

먼저, 우리는 언제나 불안의 칼끝에 선 듯이 살아온 이력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생애 중에 경천동지할 사태가 다반사로 벌어졌고 그 위력과 파장은 엄청났다. 설사 그 사태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었어도 줄어드는 가슴이 대범함으로 진화되지 못했다. 커다란 파도가 몰아쳐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또다시 우리의 현존재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불안감은 진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의 배후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이미 보수신문까지도 날날이 지적한 바 있다. 정책 효율 면에서 실기하는 일이 잦은데다가 상황의 실체를 발표하기보다는 여론진작용으로 립서비스를 하는 일이 잦다. '지금이 기회다. 나부터 펀드에 가입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런 식의 상황과 동떨어진 유도발언은 무한책임임을 지닌 국정 책임자가 할 만한 언급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불신이 이 정도 승강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얼마 전 달러 가치가 하염없이 치솟을 때 집권당 의원이 집집마다 외환통장 만들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장롱 속 외환을 꺼내자는 제안도 연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키는 이 제안의 반향은 어땠는가. 냉소였다. 심지어 환치기를 일삼는 대기업들 처신과 맞물리면서 적의에 찬 반응이 터져 나왔고 제안은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여파는 한국기업의 어두운 잔영과 정권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부유층 '만'을 위한 정부라는 냉소적 여론이 그것이다.

해외의 지나간 사례가 많이 인용된다. 요즘 말로 이머징 마켓이라 함직한 신흥부국들이 예외 없이 제1세계 진입에 실패한 배경이 그것이다. 국가성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정권 창출이 일어나고 이 기득권 대행정권의 편향적 정책에 의해 사회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물론 국가추락이 기다린다.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사례가 한때 국가 경제서열이 세계 6위에까지 올라섰던 아르헨티나의 경우이고 그밖에도 유사 사례가 무척 많다.

우리 나라의 현정권이 과연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을 대행해 주기 위한 정부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정부 비판자들에 의해 수많은 단정적 진단이 있어왔지만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앞에서 과연 정책 당국이 중부세 인하 등 세수인하 정책을 편다거나 금산분리 완화조치에 분명한 것이 시의에 적합한 행동인가 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크니 말이다. 전자는 서민층의 내수 진작을 위한 재원이 줄어드는 정책이고 후자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 해도 국민 총의를 모아 함께 위기에 대처하기는 난망할 것이다.

개인이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또 한 가지 원천은 이른바 미국식 금융 경제의 항구적 불안정성이다. 지금 위기를 적당히 넘긴다 해도 소위 '헛지머니'에 의한 난리판은 끊임없이 닥쳐올 것이고 그 앞에서 한국경제는 항상 본보기처럼 요동을 치게 될 것이다. 혹시 만성이 돼서 금융불안쯤은 늘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정도로 여기는 때가 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 같은 난리 국판이 반복된다면 무슨 수를 내도 내야만 하겠다. 그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제 금융 감시기구 신설인데 그런다고 효험이 있을라나.

과연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단정적으로 말하건대 개인이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개인이 노후를 별도로 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학자금, 병원비 같은 사회성원의 기초비용 염출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는 많다. 물론 평상시 엄청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나라를 원한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직업적 투자자나 사업가가 아닌 소시민이라면 그 풍향에 고심 참담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말이다. ㉓



글쓴이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한다'의 자문위원 및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여야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